

나눔터

보관용

퍼낸곳: 한국성폭력상담소/ 퍼낸날: 1993년 4월 28일/ 계간발행/ 주소: 서울 서초구 우체국 사서함 45호 (우. 137-600)/ 전화: 02) 525-5837~8



1993년 3월 16일에 시작한 '제 3기 예비여성학 교육'에서

차 례

| | | | |
|--------------------------------------|---|---|----|
| 이런 일을 했습니다 | 2 | 연령별 성교육 (장정순) | 10 |
| 여기는 상담실 | 4 | 내가 경험한 우리 아이 성교육(최정복) | 11 |
| 지상상담 | 5 | 읽어봅시다/성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 12 |
| 상담은 이렇게 | 6 | 나눔터 애깃글/진취적인 어머니도 가르칠 수 없는 일(공지영) | 13 |
| 이렇게 생각한다 | 7 | 성문화 읽기 | 14 |
| 피해 신고야 말로 성폭력을 줄이는 지름길이다.(박혜숙) | 7 | 미리보는 상담소 | 15 |
| 성폭력 사건일지 | 8 | 함께 생각해 봅시다 | 16 |
| 특집: 법률적 도움을 드립니다. | 8 | 자원활동의 의미 | 17 |
| 성폭력 범죄에서 발견되는 몇가지 문제(박찬운) | 8 | 인사드립니다(강기원) | 18 |
| | | 나눔터 알림판 | 19 |

제 3기 상담원 교육을 하면서

현 히 순(본 상담소 교육부장)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전문 상담원 육성을 목적으로 제 3기 상담원 교육이 시작되었다.

상담원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교육부 주관으로 총무, 부장, 부원으로 구성된 교육부 팀에 의해 진행된다. 상담원 교육은 성폭력 상담이 여성중심상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상담원 예비 여성학교육이 8주, 상담원교육이 다시 8주동안 진행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진 이론을 바탕으로 8주의 실습교육을 마치면 성폭력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3기 상담원 교육준비는 1992년 12월 11일에 첫모임을 시작으로 1993년 3월 15일 7차 모임까지 4개월에 걸친 준비모임에서 모든 교육 일정이 짜여졌다. 제 3기 상담원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은 강의안 작성, 그에 따른 강사 섭외, 강사에게 강의 일정표 및 강의안 의뢰서 발송, 각 보도기관에 홍보자료 발송(1차발송-1월 20일, 2차발송-2월말),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자료책자 준비, 교육관 섭외 등으로 교육부 팀 전원이 분담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 준비 과정에서 전년도와 달랐던 것은 홍보를 2차에 걸쳐 했고 강사에게서 미리 강의안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강사들의 성의 있는 협조로 만들어진 강의안은 강의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준비작업이 이루어진 후 2월 초부터는 교육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교육생들이 상담원교육이 있음을 알게된 경로는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신문 등 주요 일간지와 여성신문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3월 16일 본 상담소 교육관에서 드디어 상담원예비여성학교육이 시작되었다. 장소는 합춘 여성의원의 세미나 실인데, 원장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무료 대여는 큰 힘이 되었다. 총 80 여명이 신청을 했는데 막상 등록을 한 인원은 약 1/3인 28명

이었다. 3기 교육생들은 연령대가 다양하여 20대 12명, 30대 11명, 40대 4명, 50대 1명으로 30대가 주 연령이며 이것은 1,2기 때와 비슷한 현상이다. 2기 때도 청일점으로 남성교육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남성이 한 명 있다. 물론 성폭력 피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남성은 상담원이 될 수 없지만 성폭력의 실상을 동감할 뿐만 아니라 동참하여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성이 있는데 뿌듯함을 느꼈다.

앞풀이는 본 상담소 최영애 소장님이 2년간 상담소를 이끌어 가면서 체험한 성폭력의 실상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 주셨고, 이어서 28명 3기 교육생들의 자기 소개 시간이 있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교육생은 숙직 도중 성폭력을 당할 위기에서 끝까지 저항하다 척추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지 얼마 안되는 20대 여성이었다.

“주어 버리면 그만 일지도 모르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저항했다”는 이 교육생의 말은 결국 성폭력이 정조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다. 이 일로 남들이 보면 불편해 보이지만 자신에겐 없었던 안될 보조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었듯 잘못된 성문화 때문에 상담소를 의지하는 모든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그녀가 보조지팡이가 되어 주길 기대해 본다.

이렇게 시작된 제 3기 예비 여성학 교육이 6주째의 강의를 앞두고 있다.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게 된 동기는 다양했지만 관심은 여성의 지위와 성폭력의 실상에서 자극받은 여성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있어서인지 28명 교육생 모두 강의를 듣고 문제제기하고 토론하는데 열성적이다. 28명 교육생 전원이 앞으로 남은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성폭력 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 다음은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 3기 상담원 교육' 강의안입니다.

| 날 짜 |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
| 1주 (5/18) |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최영애(본 상담소 소장) | 비디오 감상과 토론 영화 "사랑과 추억" |
| 2주 (5/25) | 상담원리와 기법 1 김경민(서강대, 심리학) | 상담원리와 기법 2(실습) 김경민(서강대, 심리학) |
| 3주 (6/1) | 여성중심 상담 1 정경자(본 상담소 총무) | 여성중심 상담 2 정소영(서울신학대, 심리학) |
| 4주 (6/8) | 법적 절차 및 대응 방식 1 박찬운(변호사) | 법적 절차 및 대응 방식 2 김강자(서울시경 민원실장) |

| 날 짜 | 오전(10시 30분 - 12시 30분) | 오후(1시 30분 - 3시 30분) |
|--------------|--------------------------------------|---------------------------------------|
| 5주 (6/15) | 의학적 대응방안 1: 가해자측면 남정현(한양대, 신경정신과) | 의학적 대응방안 2: 가해자측면 이나미(이나미 신경정신과원장) |
| 6주 (6/22) | 의학적 대응방안 3: 산부인과 민용기(합춘여성의원 원장) | 성폭력 유형별 문제점 임순영(본 상담소 총무) |
| 7주 (6/29) | 상담사례연구를 통한 상담실습 현혜순(본 상담소 교육부장) | 상담실습(Role Play) 조중신(본 상담소 상담부장) |
| 8주 (7/6) | 상담원의 자세와 역할 이미경(본 상담소 총무) | 뒷풀이 |

즐거운 겨울 합숙훈련(M.T.)

지난 1월 30일에서 31일에 분당 '제 2의 우리집' (본 상담소 소장 자택)에서 겨울 합숙훈련이 있었다. 몸을 풀기 위한 1부에서는 수영, 볼링, 피구 등 각자 적성에 맞는 운동을 택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으며 맛있는 저녁식사 후에는 각자의 노래 솜씨를 발휘하였다. 2부에서는 각각의 분과 토론 - 사무봉사자, 상담원, 상근자와 발기인들이 그 동안의 활동 평가와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에도 계속하여 합숙훈련 총평가와 상담소의 1년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았다.

싸이코 드라마 관람 계속

상담부에서는 상담원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싸이코 드라마를 관람하고 있다. 싸이코 드라마가 상담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상담원들의 여론에 따라 국립정신병원에서 2주에 한번씩 목요일 3시에 만남을 갖고 있다.

제 3차 정기총회 열려

1993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6일(土) 오후 2시에 본 상담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92년 활동과 결산보고 및 93년 활동계획과 예산안 심의, 의결, 정관개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 올해에는 임원단의 임기 만료로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되었는데, 3대 이사장에 강기원 변호사, 상임이사에 민병진 이사가 취임을 했고, 2대 소장은 현 최영애 소장이 유임되었다.

1993년의 중점사업은 오는 4월에 지금까지의 상담사례의 분석, 발표를 포함한 '2주년 기념행사'와 9월부터의 '성폭력 위기센터' 운영으로 결정되었다. 특히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본 상담소가 피해여성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고, 우리사회의 성문화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다.

일본 국제회의 참석

3월 1일에서 3월 5일까지 5일간 일본에서 열린 국제회의(JAPAN INTERNATIONAL SOCIAL SERVICE)에 본 상담소 변혜정 간사가 CHILD ABUSE 부분의 '한국에서의 어린이 성폭력' 부분을 발표하기 위하여 참석하였다.

'성문화 읽기' 모니터 모임 시작

각종 매체에 관심이 있는 본 상담소 1기, 2기 상담원들을 중심으로 '성문화 읽기' 모니터 모임이 만들어졌다. 지난 2월 27일 첫모임을 시작으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2시 본 상담소에서 갖는다. 주제는 한달 전에 공고하여 구성원 외에도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모임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상담사례연구모임 진행되다

상담부(부장: 조중신)에서는 상담활동을 평가하고 상담원 지속교육을 겸한 상담사례연구모임을 매달 한차례씩 갖고 있다.

2월 모임에서는 '기독교와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본 상담소 최영애 소장의 특강이 있었다. 3월 모임에서는 내담자가 직접 상담한 사례 중에서 두 건을 골라 현혜순(교육부장), 이종임(상담원)의 발제로 각 상담의 진행과정, 상담결과, 문제점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상담원들이 실제 상담과정에서 겪는 여러 문제점을 토론하고 상담원의 느낌을 서로 나누는 상담사례연구모임은 회를 거듭할수록 상담원들의 상담태도를 점검하고 더 좋은 상담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보는 '슈퍼비전'의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본 상담소 최영애 소장 여연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 의 새 위원장으로

본 상담소 최영애 소장이 지난 4월 2

일 여연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성특위)의 대표자회의에서 새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성특위'는 새 정부가 성폭력특별법을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요구가 담긴 성폭력 추방의 방안을 담은 올바른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 법사위 공청회 참가(4월 30일), 법사위 소속위원들과의 면담, 대 국민 홍보활동 등 총력을 기울기로 했다. 오는 5월에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개소 2주년 기념자료집'을 위한 웍샷진행

지난 4월 10일에 제 4회 정기 세미나가 있었다. 개소 2주년 기념자료집을 위한 웍샷 형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20여명의 상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료집 구성 및 상담사례 분석결과를 놓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료집은 4월 29일 개소 2주년 기념행사에 맞추어 발간될 예정이다.

2기 상담원의 '교육자료집' 발간

2기 상담원들의 '교육자료집'이 4월 중에 발간될 예정이다. "제 2의 탄생을 예고한 두 개의 강의"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받았던 상담원 교육강의를 2기 상담원들이 나누어 정리하는 형식을 취했다. 2기 상담원들은 이 자료집을 만들면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고, 더 좋은 상담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료집은 3기 상담원교육의 참고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본 상담소 한글 브로셔 제작

본 상담소의 대외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또한 이 전의 브로셔와는 달리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라는 란을 신설하여 한글 브로셔를 제작 중에 있다. 4월 안으로 완성되면 체계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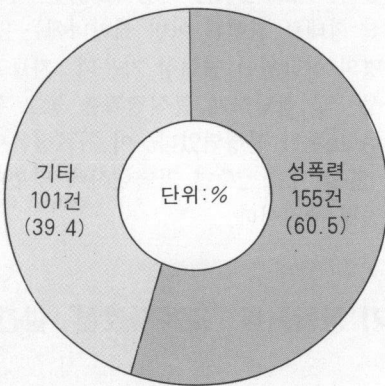
*이상은 날짜 순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상담유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올 1월부터 상담분류표가 조정되었다.

상담분류표는 크게 성폭력, 기타, 재상담으로 분류되어 상담건수와 상담횟수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표1> 성폭력은 성폭행과 성추행으로 분류, 다시 성폭행은 일반강간과 윤간으로, 성추행은 일반 성추행과 강간미수, 언어추행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음란전화는 언어추행에 포함시켰다.

93년 1월부터 3월까지 본 상담소에는 256건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110회의 재상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총 366회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256건의 사례 중 성폭력 사례는 155건으로 60.5%를 차지한다. <그림 1>



<그림 1> 상담건수(256건)

성폭력 피해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성폭력 중 성폭행이 106건으로 68.4%를, 성추행은 43건으로 27.7%를 차지한다. 성폭력 상담이외의 기타 상담은 101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39.4%를<그림 1>, 성문제나 순결에 대한 상담은 작년에 이어 올 3개월간도 가장 많은 55.4%를 차지한다.

성폭력 상담건수 중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족, 동네사람, 데이트상대, 직장상사나 동료 등 아는 사람이 60.7%, 모르는 사람이 18.7%, 미상이 3.2%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0~7세 유아가 3명으로 1.9%, 8~13세 어린이가 14.2%, 14~19세 청소년이 35명으로 22.6%, 20세 이상 성인이 95명으로 61.3%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체 피해자의 38.7%

<표 1> 상담분류표

1993년 1월 ~ 1993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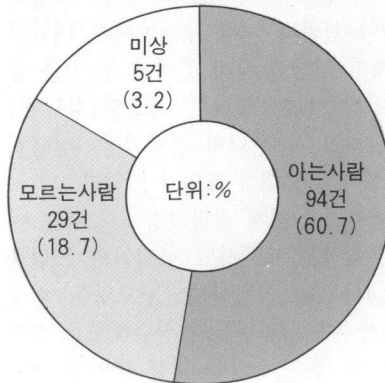
| | 유 | 형 | 가 | | 해 | 자 | 피 | | | | 해 | 자 | 소 |
|---------|-----------------------|--------------------------------|---------------------------|------------------|------|-----------|-----------|------------|-----------|---------|----|---|---|
| | | | | | | | 성인(20~) | 청소년(14~19) | 어린이(8~13) | 유아(0~7) | | | |
| 성 폭 | 성폭행 106 (68.4%) | 일반 강간 99 (45.2%) | 아는 사람 70 (45.2%) | 친 | 족 | 아버지, 오빠 | 1 | 2 | 6 | 1 | 10 | | |
| | | | | 친 | · 인척 | 3 | 4 | 1 | | 8 | | | |
| | | | | 동네사람(8.4%) | 7 | 5 | 1 | | 13 | | | | |
| | | | | 데이트상대(7.1%) | 9 | 2 | | | 11 | | | | |
| | | | | 직장상사·동료(6.5%) | 10 | | | | 10 | | | | |
| | | | | 교사·강사(0.6%) | | 1 | | | 1 | | | | |
| | | | | 기타(11.0%) | 13 | 3 | 1 | | 17 | | | | |
| | | | | 모르는 사람 24(15.5%) | 15 | 5 | 4 | | 24 | | | | |
| | | | | 미 | 상 | 5(3.2%) | 3 | 2 | | 5 | | | |
| | | 윤 | 간 | 7(4.5%) | 2 | 5 | | 7 | | | | | |
| 력 | 성추행 43 (27.7%) | 일반 성 추행 29 (15.5%) | 아는 사람 24 (15.5%) | 친 | 족 | 아버지, 오빠 | | 1 | 5 | 1 | 7 | | |
| | | | | 친 | · 인척 | 1 | | | | 1 | | | |
| | | | | 동네사람(1.3%) | | 1 | | 1 | 2 | | | | |
| | | | | 데이트상대(0.6%) | 1 | | | | 1 | | | | |
| | | | | 직장상사·동료(2.6%) | 4 | | | | 4 | | | | |
| | | | | 교사·강사(1.3%) | 1 | | 1 | | 2 | | | | |
| | | | | 기타(4.5%) | 7 | | | | 7 | | | | |
| | | | | 모르는 사람 5(3.2%) | 4 | | 1 | | 5 | | | | |
| | | | | 미 | 상 | | | | | | | | |
| | | | | 강간미수 2(3.2%) | 1 | | 1 | | 2 | | | | |
| | | 언어추행 12(7.7%) | 11 | 1 | | | 12 | | | | | | |
| | | 남성피해 6 (3.9%) | | | | | | 2 | 3 | 1 | | 6 | |
| 계 (건 수) | | | | | | 95(61.3%) | 35(22.6%) | 22(14.2%) | 3(1.9%) | 155 | | | |

| | | | | | | | |
|-----------------------|---------|-----------|----|----|---|--|-----|
| 기타 101 (100.0%) | 성문제, 순결 | 56(55.4%) | 40 | 14 | 2 | | 56 |
| | 인신매매 | | | | | | |
| | 아내구타 | 3(3.0%) | 3 | | | | 3 |
| | 혼인빙자 | 5(5.0%) | 5 | | | | 5 |
| | 장난전화 | 8(7.9%) | 5 | 3 | | | 8 |
| | 기타 | 29(28.7%) | 21 | 8 | | | 29 |
| 계 (건 수) | | | 74 | 25 | 2 | | 101 |

| | | | | | | | |
|----------|--|-----|----|----|---|--|-----|
| 합계 (건 수) | | 169 | 60 | 24 | 3 | | 256 |
|----------|--|-----|----|----|---|--|-----|

| | | | | | | | |
|-----|--|----|----|----|---|--|-----|
| 재상담 | | 62 | 20 | 26 | 2 | | 110 |
|-----|--|----|----|----|---|--|-----|

| | | | | | | | |
|----------|--|--|--|--|--|--|-----|
| 총계 (횟 수) | | | | | | | 36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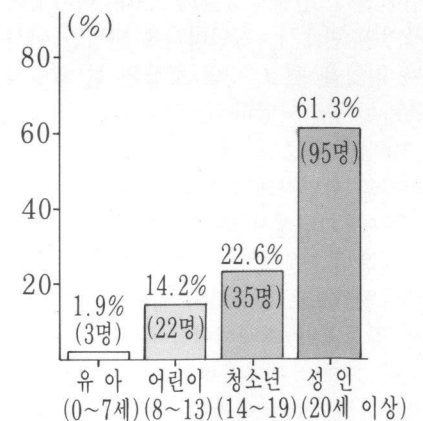


<그림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를 차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특히 91년 4월 개소 이래 지난 해까지 20개월 동안 남성피해자 상담이 18건이었는데 올들어 3개월 안에 이미 6건이 접수되었다. 이제 성폭력은 여성만의 문

제가 아니라 남성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점차 남성들도 상담을 통해 입을 열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분류

지속적인 상담과 격려로 회복을!

10년 전 믿었던 교회 목사님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결혼도 안한채 피해의식과 우울증에 시달려온 C시의 H여인(38세)이 92년 7월부터 93년 2월까지 7회의 지속상담을 통해 정서적인 극복과 강한 삶의 의지를 보였다.

초기에는 무기력과 피해의식으로 심한 정서불안을 보였으나 상담원의 계속적인 지지와 격려로 아픈 상처를 치유로 털어 놓으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주인 의식과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자기와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상담원 교육을 받고 싶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반복되는 푸념에서 지속적인 상담으로 태도를 바꾼 내담자!

91년 5월부터 간헐적으로 신분과 사연을 조금씩 바꾸어가며 16회 상담을 계속해오던 S여인(29세)이 이제 성의있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자세를 갖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어렸을 때 오빠로부터의 성폭행으로, 심한 정서불안과 현실 부적응상태를 보인 S여인은 상담원에게 습관적으로 푸념을 오랜시간 늘어놓곤 하였는데, 그런 반복이 결코 정서적인 치유와 현실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득과 권유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도 이런 반복되는 푸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솔

직한 의지를 보여 지정된 상담원과 지속상담에 임하고, 편지상담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한편 집단상담에 참여하고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학원강사가
영화 배우 지망생 강간!

연기학원 강사가 학원생에게 비디오 촬영을 하러 가자고 유인하여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본 상담소에 대리상담으로 접수된 이 사건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2주 진단서와 전화 녹음 테이프의 증거물 제시, 서울 시경의 남궁속 경정의 도움으로 지난 3월 가해자가 구속되었다.

지상상담

자아존중감을 가져야 합니다

문 며칠 전에 집근처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늦은 시각이어서 나름대로 주위도 살피고 빠른 걸음으로 골목에 들어서는데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니까 마음을 놓았지요. 거의 대문 근처에 다 왔을때 누군가가 입을 막고 칼을 옆구리에 들이 대면서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차에 밀어넣고 동네 약수터 근처로 갔습니다..... 차안에서 당하고 말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뛰어 내려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던 나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습니다. 천근이나 되는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주무시고 언니가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언니는 놀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날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암담합니다. 결혼은 할 수 있을까요?

답 가장 가까운 언니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고 계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도둑이나 강도를 맞았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신고도 하고 적절한 치료도 받을 수가 있는데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드러내 얘기도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므로 정신적으로 상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소리도 지르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기 앞에서는 공포를 느끼고 무력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폭행을 당한 것이고 폭행당한 부위가 성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여겨져 여

성은 이중삼중의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순결을 잃었다, 더럽혀졌다는 의식을 떨쳐버리고 더이상 그 문제로 상처받지 않겠다는 자아존중감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폭력을 당한 피해자이지 성관계를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임신여부, 성병여부, 타박상 등 상처에 대한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떼고 모든 증거물들을 수집해 놓으셔야 고소하게 될 때 유리합니다. 가해자의 인상이나 옷차림, 말씨, 특색있는 버릇, 차색, 차종, 악세서리 등을 기억 나는데로 메모해 두십시오. 가해자가 다시 동네 주변에서 서성거릴 수도 있고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일로 공포심과 피해의식으로 행동이 위축되지 말고 그런 나쁜 일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분노와 의지로 일어서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피해를 받은 다른 여성과 만나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고, 또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정서적인 극복에 큰 힘이 됩니다.

심리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가장 하고 싶은 일, 가장 잘하고 재미있는 일을 해 보십시오(음악감상, 뜨개질, 쇼핑, 운동, 친구와 만나는 일, 봉사, 집안일 등). 낮에 바쁘게 생활하면 저녁에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의 불운한 사건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늘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자신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 당당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종 임)

본인상담의 의미와 실제

심 창 교(제 2기 상담원)

사례 - 여대생 강간 사건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여대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통!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상담원 자신도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지방출신으로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늘 학교에서 일등을 하였다는 그녀는 비참하게 짓뭇혀져 있었다. 겨울방학 동안 아르바이트와 학원에서 일어를 배우기 위해 집에 내려가지 않고 하숙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날 밤도 늦게 학생을 가르치고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자가용에 강제로 끌려 가서 과천 근처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한다. 처음이라 출혈도 심하고 구타를 당해 몸도 엉망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꼼짝않고 있다가 상담소로 전화를 해왔다.

(1) 본인상담의 의미

본인상담은 피해자인 본인이 위기 상황에서 숨기지 않고 결단을 내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상담이다. 즉 용기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상담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담자들은 온갖 성폭력의 수치심과 분노를 떨쳐버리고 싶어한다. 위의 사례에서도 내담자는 울음으로, 머뭇거림으로 상담을 시작했지만 상담원의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내담자가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받을때 빠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똑똑하고 총명한 자신이 왜 그 순간 그것을 피하지 못했는가? 이상과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엄청난 일을 겪은 후에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머리 속의 많은 지식도 난폭한 남자의 폭력앞에서는 무용지물이며 자신의 애처로운 설득도 소용이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생각해 왔던 세상, 남자들에 대한 인격적인 바램, 이 모든 것들은 단지 희망사항이었다.

그녀의 울분이 모든 여성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갔다. 동시에 사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다. 또한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이 어떠한 의도에서 상담 해 오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숙고하게 되었다. 피해자 자신의 분노, 자아 상실감, 무기력, 원망을 직접 들으면서 그것들이 점차로 피해자에 게서 정리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세상 어떤 누구에게도 이야기 할 곳이 없어서, 성폭행당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혼자 몸부림치는 피해자! 그들이 스스로 전화를 통해서 상담할 때, 문제의 해결을 완벽하게 바랄 수는 없어 도 그들은 분노를 맘껏 뿜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일단 본인이 상담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건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 본인상담이 갖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담원은 내담자와의 상담 중에 놓치기 쉬운 것들을 얻어낼 수 있으며 내담자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 동시에 내담자는 자신의 마음을 속속들이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전화로 상담 하였을때 더 잘 나타날 수 있다.

(2) 본인상담과 전화상담의 연계성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성에서 오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은 익명성이 요구되는 전화상담을 필요로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 때문에 전화상담을 많이 한다. 나이, 직업, 신분 등 모든 것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지만 사건을 위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상담은 내담자의 솔직성이 요구된다. 또 내담자는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원의 냉정하고도 인내심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눔터 6호 참고)

본인이 직접 전화상담을 할 경우 굳이 자신의 모든 면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담원은 많은 것을 직감과 경험에 의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담원은 목소리로 전해오는 피해자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해 편견이나 지나친 동정심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담원은 올바른 판단, 순발력, 직감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이야기하려는 내면의 모습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기상담에서 본인이 전화를 하는 경우는 혼란한 일이 아니다. 본인 상담시 내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담원은 더 긴장하게 되고 또한 내담자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상담원은 객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하며 내담자가 과거에 어떠한 것인지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 즉 문제에만 몰입된 상태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대처양식(mode of coping)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내담자는 며칠간 꼼짝하지 않고 울면서 자신을 저주하다가 죽음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폭행 당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육체적인 고통, 수치스러움, 그 위기의 순간을 드러내지 않고 극복해보고자 전화상담을 하였다.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같은 경험을 한 다른 사람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했다. 상담원 자신도 내담자가 혼란에서 벗어나 상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문제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노력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장점을 살려주고, 또 자신이 몰두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고통이 조금이라도 극복되길 바랐다. 그녀는 울기도 했지만 장래에 이 험한 세상에서 피해 여성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녀는 상담이 끝나갈 무렵 처음과는 달리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상담원은 상담원대로 피해자와 같은 여성이라는 자매애가 느껴졌고 인간에 대해 어떠한 편견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담자가 견디고 나가야할 고통의 무게만큼 상담원의 사랑이 준비될 날을 기대해본다.

편집자 주

이상은 본인상담의 전화 · 편지 · 면담상담 중 전화 상담의 의미와 실제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담은 이렇게"는 '더 좋은 상담을 위한 모임'(상담부)에서 토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 게재할 것입니다.

피해 신고야 말로 성폭력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박 혜 숙(여성신문 기자)

얼마전 10대 성폭행피해자의 부모가 딸이 봉변을 당한 현장에 잠복, 보름만에 또 다른 여중생들을 성폭행하고 달아나던 10대 범인들을 붙잡았던 사건이 있었다. 이 부모의 용기와 집념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이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그간 넘어 서기 힘든 '사회적 장벽'으로까지 보이던 성범죄 피해자들의 '사건은폐'는 '또다른 피해를 막으려했던' 이 부모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이처럼 용기있는 부모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 많지 않은 것이 유감이고 어쩌면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피해를 호소해 봤자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고통을 겪어야 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실정에서 '피해를 감내하며 조용히 입다무는 게 상책'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비극은 이같은 '패배적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듯 또다른 성폭력 사건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로 반작용해 왔다는 점이다.

성폭행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가부장적 순결이데올로기와 가해자인 남성들을 비교해 온 법적 장치, 성폭행과 관련된 통념에 대한 여성들의 '반격'의 성공으로 <성폭력특별법>제정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은 여성운동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 치유책을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서 앞으로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바로 '용기있는 신고의식'이 아닐까 한다. 성

범죄를 최단기적으로 줄여나가려는 노력의 핵심은 또다른 피해를 막는 지름길인 신고에 있다고 본다. '신고'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처럼 피해자가 마치 '더 큰 범죄자인양' 취급하는 풍토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마치 몸가짐을 잘 간수하지 못한 죄인양' 보는 현실이 성폭행에 관한 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범죄 영역이 되게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의식도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딸의 피해사실을 알고 범인을 잡기 위한 한 부모의 몸부림은 바로 지난 4·5년간 많은 여성단체에서의 노력의 값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성폭행을 최소한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막아 보려는 '특별법'이 잉태된 상태에다 성폭행이 야기되는 근본원인 특히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결코 '죄인'이 될 수 없고 죄인으로 치부되어서도 안된다는 그간의 노력이 우리 부모들에게, 시민들에게 '입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의 의식속에는 '성폭력 피해 신고 거부증'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성폭력을 근절하려고 노력중인 단체들이 역점을 둘 부분이 '피해 신고야말로 성폭력을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의식의 확산 작업이 아닐까 한다.

성폭력사건일지

다음은 93.1.17 ~ 4.14 까지의 성폭력 사건입니다.

☞ 성범죄 방지용 속옷(정조대) 판매 - (1.31 동아)

이제는 성폭력마저도 '상품'인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폭력의 급증이 이 상품의 판매실적을 높이는 것 아닌가? 이는 성폭력의 불안에 떠는 여성들을 매개로 하여 이윤을 남기자는 얇은 장사속이며, 설사 성폭력의 근절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더라도 성폭력은 여성만 조심하면 된다는 식의 통념을 받아들이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이보다는 정책적,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딸 성폭행한 10대 성폭행범들을 잠복끝에 붙잡은 용감한 가족 - (2.24 한겨레, 경향)

집안의 수치라고 '쉬쉬' 했으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속출했을 것이다. 성폭력의 근절은 성폭력이 혼자만의 일이 아님을 인식하여 신고율을 높여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변하고 있다.

☞ 수련의가 임산부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 - (3.11 조선, 경향)

한국판 '요람을 흔드는 손'. 영화에서는 성추행한 의사를 신고하는 바람에 신고자가 의사의 부인에게 원한을 사서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적극적 신고율이 성폭행을 예방, 근절할 수 있다.

☞ 케네스 마클 이병 무기징역 선고 - (4.14 각 신문 종합)

김부남은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다. 그러나 살인 미군은 사람을 죽인 '짐승'이다. 성폭력이 대 사회적인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한, 이 사회는 '짐승'이 판을 치는 왕국이 될 것이다.

☞ 그 밖의 경악할 만한 성폭력 사건들

- 부녀자에게 700여회 음란전화 한 전화폭력범 첫 구속 - (2.4 치안신문)
- 여고생 납치 폭행한 고교생 남자 2명 영장 - (2.13 조선)
- 상경한 10대 소녀 성폭행 당한 후 피살됨 - (2.14 한겨레, 한국)
- 방위병이 강도, 강간, 살인 10여 차례 - (2.20 조선)

성폭력 범죄에서 발견되는 몇가지 문제

- 상담자와 피해자를 위한 몇가지 제언 -

박 찬 운(본 상담소 자문위원, 변호사)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은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이 원칙을 알지 못하면 성폭력범죄에 임하는 상담자는 무조건 피해자의 주장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상담내용 또한 피해자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균형 감각을 잃기 쉽다.

1. 성폭력범죄를 보는 기본적 시각 - 상담자를 위한 제언

가. 상담과정에서의 가해자는 단지 혐의자일 뿐이다.

상담을 하다보면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가해자는 천하의 패륜아로 용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소위 피해자의 주장일 뿐이라는 생각도 해야 한다.

재판절차를 상정하면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상대방 가해자는 성폭력의 혐의자(의심받고 있는자)일 뿐이다. 증거로 확인되지 않으면 나아가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그도 변명과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인격체임을 인정해야 한다.

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현대문명국가가 만든 형사소송의 최고의 원칙이다.

우리의 헌법은 “피고인(피의자)은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수사절차와 형사재판 전체에 흐르는 대원칙이다. 종종 이야기 되고 있는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은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원칙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이 원칙을 알지 못하면 성폭력범죄에 임하는 상담자는 무조건 피해자의 주장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상담내용 또한 피해자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균형 감각을 잃기 쉽다.

혐의자에 대해서 무조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피해자가 이야기 한다해도 상담자가 이 원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보호 받아야 할 또다른 인권(만약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어 무고한 사람이 구속되는 것을 생각해 보라)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친고죄에서 비롯되는 몇가지 문제점

가. 친고죄가 아닌 성폭력범죄도 있다.

일반적인 강간,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소위 친고죄이다. 그러나 강간치상이나 특가법(특정범죄가 중처벌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하여 윤간이나 흥기를 소지하고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면 친고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제3자도 고발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간혹 강간 도중에 사용한 폭력행위만 따로 떼어 고소, 고발할

수 없느냐고 물어오는데(이는 고소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별 생각없이 취하해 준 경우 뒤에 문제삼을 때나 고소기간 경과 후에 범인을 찾았을때 그 필요성이 있다)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강간도중의 폭력행위는 강간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에 불과하여 강간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판례도 강간사건에서 고소취소후 수사기관이 폭력행위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나. 친고죄는 고소기간이 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 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여기서 문제는 “범인을 알게된 날”의 의미인데 이는 “적어도 범인이 누구인가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된 날”을 말하며, 반드시 범인의 주소, 성명까지 알 필요는 없다. 수개의 성폭력을 당하였다면 개개의 성폭력이 별도의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기간은 각각 진행한다(예, 1993. 1. 1 강간, 1993. 2. 1 강간이라면 1. 1자 강간은 1993. 6. 30에, 2. 1자 강간은 1993. 7. 31에 고소기간이 끝난다).

다. 고소취소는 언제까지 하고 다시 고소할 수 있는가.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은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에 하지 않으면 취소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측과 합의한다면 위 기간내에 해야만 한다. 또 고소를 일단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를 취소해주었다가 뒤에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고 동일한 범죄로 고소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수사와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가 수사과정과 재판절차를 보다 보면 사실과 달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주장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에는 피해자의 의견서나 탄원서의 형식으로 진상을 알리고, 수사의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내는 것도 필요하다. 사건이 재판진행 중이라면 위와 같은 서면도 좋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도록 신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권을 권

리로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널리 활용할만하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법원에 피해자 진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법원의 결정을 받아 출석하면 된다.

4. 형사처벌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소위 가해자 입에서 나오는 “몸으로 때운다”라는 말은 무식한 가해자의 항변일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 혹은 재판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으로서 진행된다. 즉 피해자는 이 합의를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의사를 철회하고(고소취소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대가로 금전을 받게 된다. 이 금전 수수부분이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다.

한편 합의과정에서 돈을 준다고 하여 합의를 해주었는데 뒤에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형사고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위 합의약정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5. 피해자의 증거수집 활동

가. 무죄란 무엇인가

무죄는 검사가 범죄라고하는 주장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경우(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증거는 대부분 피해자에게서 나온다

그런데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은밀히, 목격자 없이 자행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 피해자의 수치심도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준다. 피해자의 진술뿐인 사건은 수사관이나 법관의 사실인정을 어렵게 만든다. 수사관이나 법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조금이라도 보강해주는 객관성 있는 증거를 원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이 기회에 피해자들에게 몇가지 권고하고자 한다.

가해자에 대해 진실로 처벌을 원한다면 범죄발생후,

- 첫째, 바로 신고하라.
늦어질수록 증거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 둘째, 범죄발생 후 바로 의사를 찾아가 상담하고 정액 채취가 가능하면 바로 채취해 놓는 것이 좋다.
진단서를 발부 받는 것은 물론이다.
- 셋째,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시키며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별도의 범죄(협박죄)이며, 성폭력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증거이니 녹음이 가능하면 그것을 시도해보라.
- 넷째, 성폭력상담소나 믿을 만한 법률전문가와 가능한 빨리 연결하여 냉정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6. 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가해자 처벌하는 방법

성폭력의 피해자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 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피해자를 가급적 부르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실체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꼭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나가야 되느냐고 질문해오면 상담자로서는 꽤 난처해질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향후 성폭력특별법과 같은 법률의 제정으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해주는 입법문제로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피해자측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나가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만일 그렇다면 처벌을 위해서도 피해자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를 부르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증거를 대부분 피해자가 가지고 있고, 가해자가 부인을 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여부가 공소유지에 있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가해자가 만일 무고한 사람이라면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진술(피해자 진술조서)만으로 유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은 가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피해자 진술에 대해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할 때는, 특별한 사정(사망, 질병으로 진술할 수 없고, 위 진술조서가 확실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이 없으면 피해자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만일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결국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무죄에 피해자의 진술이 관건이라면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의 법정출석은 불가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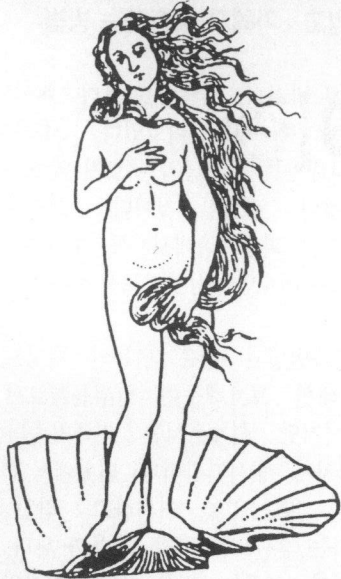
편집자 주

이번 나눈터 특집은 상담원 선생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상담의 기본자세, 피해자들이 부딪히는 사법절차의 문제점 등을 상담자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쓰여졌다.

나눈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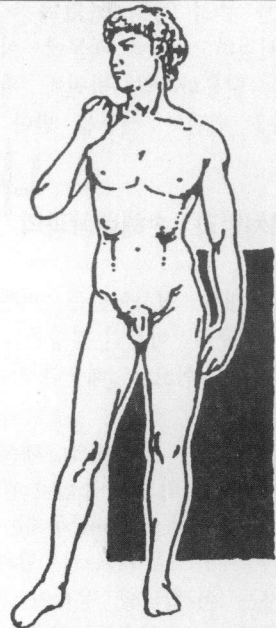
반쪽이





청소년기의 성교육

장 정 순 (단국대 여성학)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아동이 2-3세 때 부터 성기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성기의 자극과 수음이 어린이의 감각적인 생활을 지배한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커가는 어린이의 성적 호기심을 심하게 억압하면 자아의 정상적인 제어기능에 결함이 생겨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성적 에너지야말로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의 정신분석학자들은 성에 대한 호기심은 태어날 때부터라고 주장한다. 갓 태어난 아이도 부모가 성기를 만져주면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욕이란 사춘기때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부터 죽을 때까지 생애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식욕이나 수면욕과 같이 성욕도 인간본능 중의 하나라면 그러한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다만 그러한 본능을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타인과의 조화속에서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렸을 때 부터 '교육'이라는 것을 실시해왔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가 손가락질을 시작할 때부터 음식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어떻게 식사를 해야하는가 등등에 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고 이를 내면화하였다. 마찬가지로 성에 대해서도 어릴 때부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육해야 한다.

특히 사춘기는 육체적인 변화가 시작되며 몸의 구조가 어른과 비슷해 지는 시기이다. 이는 청소년도 성인과 같이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육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건장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육체적 성장에 적절한 정신적 성숙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은 추악하고 인간을 동물적 위치로 타락시키는 것이며 또 어른이 되면 자연히 알게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무시하거나 좌악시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성적인 것에 관심을 갖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성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성에 대한 논의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이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기 쉬우며, 이러한 왜곡된 성적 호기심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십대 청소년들의 성폭력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성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어른들은 '성이란 점잖치 못한 것'이라는 고정관념

과 '아직 우리 자식은 어리다'는 생각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대화로 시작하는 것이 어려우면 적절한 성교육 책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선택해서 함께 읽고, 보고,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끝으로 성교육시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성교육의 출발점은 성은 우리가 즐겨야 할 본능의 하나라는 것이다. 결코 인간을 타락시키는 동물적 행위가 아니라 육체를 매개로 하는 인간과 인간의 교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은 중요하고 육체는 하찮은 것, 특히 여성의 육체는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자신의 몸 특히 '성기'에 대한 수치심으로 자신의 신체변화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우기 여성의 생리는 불결하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여성만이 지닐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의 증거임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러한 육체에 대한 존중심을 바탕으로 남녀가 만날때 성숙한 인간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둘째로 성이란 두 사람 사이의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여자들이들은 생리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대한 최대한 방어를 해야 한다. 더우기 혼전순결이 성공적인 결혼의 조건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성은 온통 위험으로 가득차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에게는 성적본능이란 인간이 누려야 할 특권이 아니라 억압하고 자제해야 할 부담으로 인식된다. 반대로 남성은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남성다움을 과시하기 위해, 여성을 정복하는 것이 성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남녀는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원하기 보다는 쫓고 쫓기는 추격과 방어의 관계로 돌변하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남녀에게 기준이 다른 성문화가 계속되는 한 전인적이고 평등한 만남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성관계란 두 사람이 기쁘게 참여하는 전인적인 인간관계 유형의 하나일 뿐 어느 한쪽에서는 순결을 바치고 다른 한편에서 정복하는 공격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끝으로 성이란 관계에 참여하는 두 사람이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라 하여 무한정 먹을 수 없듯이 성본능 역시 인간에게 부여된 특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에 지나치게 탐닉하여 자신의 일을 중도에서 포기하게 되거나, 무분별한 행동으로 자신과 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적어도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인격적 성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성교육이란

최 정 복(두 아들의 엄마, 제 2기 상담원)

두 아들을 가진 엄마로서 결혼한지 17년이 되었다. 큰 아들은 16세로 중 3이고 작은 아들은 14세로 중 1이다. 둘 다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나도 모르게 남성우월적인 생각을 갖고 키워온 것이 아닌가 싶다. 늦게 들어와도 덜 걱정이 되고 '사내 대장부가 왜 이래'라는 말을 자주 쓰며 아이들이 남자답게 씩씩하게 자라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이에 맞는 성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마침 이 글을 쓰게 되면서 과연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왔나, 또 시켜본 적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작은 아이의 경우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도 "엄마, 밥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아기 낳지요?" 하고 묻곤 했다. 그때는 질문이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그냥 지나쳤다. '어떻게 해서 아이가 생기냐'고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 아이에게 '아이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야'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러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 언젠가 학교에서 돌아와 간식을 먹다가 불쑥 "엄마, 나 이제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오늘 학교에서 비디오 보여줬어요."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제법 거창한(?) 말로 이야기 하는 아이가 우습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서 아이 말을 되받아 물었다. "그래?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는데?" 과연 아이한테서 어떤 대답이 나올 것인가! 설마 옛날처럼 '밥 많이...' 운운 하지는 않겠지.

"하나의 생명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라는게 만나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수정'이라고 하는건데 아무때나 되는 건 아니래요."

아이는 강단에 선 교수처럼 으스스하며 제 댄에는 문자(?)도 섞여 쓰며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아이에게 제대로 '성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

기를 이어갔다.

"오늘 학교에서 성교육을 한 모양이구나. 생명탄생의 신비 말고 다른 교육은 안 받았니?"

"예. 선생님께서 나중에 크면 자연히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좀 미진한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흔히 성교육이라고 하면 생물학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 같다. 그렇기때문에 교육시키는 내용도 '임신의 과정'을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성이란 얼마나 포괄적인 것인가! 성은 성관계 뿐만 아니라 피임, 출산, 육아 등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 두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어리다면 어린 중학교 1학년 아이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탄생의 호기심에 대한 답변과 함께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성관계에 대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든다.

몇년 전 교회 활동의 하나로써 노량진에 있는 아기원에 다니면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아 준 적이 있었다. 그 곳을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 곳에 꼭 한 번 데리고 와서 보여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성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직접 보여 주고, 성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하는 불법만화나 비디오등이 넘쳐나는 우리 주변 환경을 볼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요즘은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을 아이들이 몸소 느끼며, 신뢰감을 갖게 해 주려고 한다. 올바른 성이 올바른 가정을 꾸며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가정내에서의 자연스러운 성교육인 동시에 성폭력 없는 좋은 사회로 가는 길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읽어 봅시다

성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1. 「엄마가 아기를 가졌어요」 -이다와 페터의 성 이야기. (주)현민시스템
만화이면서 쉬운 내용으로 되어있어 유치원생과 국민학교 저학년이 보기에 적당하다.

2. 「엄마,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달라요?」, 김남선 지음, 사계절
현재 국민학교에 다니는 두남매를 둔 엄마가 아이들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의 성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국민학생과 중학

생에게 알맞다.

3. 「성교육교과서」, 전교조여성국, 동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이란 인간과 인간관계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성교육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4. 「일그리진 성문화 새로보는 성」,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동아일보사
우리 사회의 성과 성폭력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정보, 통념들을 바로 잡

는 올바른 성지식을 제시하고, 여성학적 관점에서 인간적이고 새로운 성문화를 모색했다.

5. 「18cm 여행」, 데이비드 루벤, 김명희 옮김
남성의 정자가 여성의 아기집에 정착하기까지 '18cm' 길이의 짧고도 험난한 여정과 성에 관한 전반적인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진취적인 어머니도 가르칠 수 없는일

공 지 영(소설가)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였다. 이젠 아이엄마인 그녀들과 웃고 떠드는 동안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놀고 있었는데, 거기 모인 친구들 역시 이제는 집에만 파묻혀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학교 다니면서 여성학이라든가 여성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터라 교육상에 있어서 여자아이라고 해서 특별한 금기를 두는 교육은 시키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 중에 끼어 있는 한 명의 여자아이 역시 그러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남자아이들과 소꿉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놀고 있었다. 우리들은 딸들에게 “여자니까 이리이러해서는 안된다.” 대신, “사람이란 이리이러해야 한다.”라고 교육시키려고 애들을 꽤 쓰고 있는, 말하자면 ‘진취적인 어머니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육아라는 게 엄마 혼자만의 일도 아니라서 애들 아버지나 특히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딸들에게 언제나 입버릇처럼 “여자는 이리이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려는 통에 속이 상한다는 말도 오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지만 않으면 여자아이를 우리식대로 좀 더 대차게 키울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것이 거의 결론으로 맺어지는 중에 한 친구가 막 유치원에 입학한 두 꼬마에게 물었다.

-유치원 갔다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줌마가 ‘엄마가 저기서 부른다,’ 하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지?

꼬마들 둘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 아저씨를 따라가면 안돼요. 우선 집으로 가서 엄마에게 말씀 드려야해요. 그리고 사탕이나 과자를 사 주어도 절대로

받으면 안되고요. 빨리 엄마한테 와야 돼요.

아이들의 대답이 하도 야무지고 예뻐서 우리는 한바탕 웃었다. 웃으면서 문득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아주 어렸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유괴사건이 있었던 터라 어른들이 나를 데리고 심심찮게 그런 질문을 해댔었고, 나 역시 지금 대답하고 있는 저 어린 꼬마아이처럼 대답했던 것이다.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그중의 여자아이에게 말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러 갈 때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 없나 살피고 가야한다. 여자는 그런 데서 혼자서 놀면 절대 안돼...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나이많은 오빠나 아저씨가 ‘우리집에 가서 놀자’ 하고 말해도 따라가면 안된다! 언니라면 또 모르지만

여자아이는 두 눈을 톡톡토록 빛내면서 자신에게 여러가지를 주문하는 아줌마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아이에게는 특별히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남자아이는 또래들과 다시 놀이에 열중하고 있었다.

저 어린 꼬마에게 그애는 ‘여자는 이 유만’으로 왜 이렇게 경고하고 금기해야 할 것이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자라면서 저 아이는 같이 유치원에 입학한 저 남자 아이와는 다르게 얼마나 더 많은 금기를 가슴에 새겨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자 왠지 입맛이 썩었다.

우리의 어린 시절에도 유괴범은 있었지

만 혹은 성적인 추행을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가하는 남자들도 있었겠지만, 우리들은 이 골목과 저 골목, 앞산과 뒷산을 뛰어다니면서 늦게까지 뛰어 놀았고 그런 놀이를 통해 어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나만이 알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쁨도 배웠다.

물론 우리 어머니도 그저 옛날 분이어서 제발 좀 “여자다워라”라는 주문을 끝없이 해대셨지만 나는 어머니 몰래 남자아이들과 골목에서 딱지치기도 했고 구슬놀이도 했으며 탐험을 한답시고 달도 없는 캄캄한 밤중에 동네 어귀에 있는 고등학교 뒷산을 헤매고 다니기도 했다. 그것을 어머니에게 숨기면서 나는 ‘정신적 이유기’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지금의 여자아이들은, 여자를 차별해 키워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들의 손에서 크는 저 여자아이는 유치원이 파한 후 거리를 걸어 오면서 갓알에서 깨어나 빼약거리는 병아리들을 구경하기도 힘들고, 자신의 아파트 앞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도 일정한 시간에만 가야했다. 그러니까 저 여자아이는 어른들이나 주변 친구들의 감시나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혼자 놀 수조차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 여자아이에게 엄마가 뭐라든 너 자신만의 진취적인 시간들을 가져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 진취적인 시간들의 그늘 속에 도사리고 있는 성폭력에의 위협은 너무 무서운 것이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살기 힘든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보호 외에는 어디에도 가지 못하게 교육을 받은 여자아이들이, 앞으로 살아 나가면서 대체 어디서 자신만의 세계와 독립심과 진취적 기상을 배우게 될까 생각하니 여자아이들을 올곧은 인간으로 키워내는 일이 결코 그 어머니나 시댁 혹은 남편의 동의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진취적인 어머니가 되려는 우리들조차도, 설사 남편이나 시댁에서 우리들의 견해에 100% 찬성과 지지를 보낸다 해도, 이미 딸에게 진취적인 것들을 다 권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살맛나는 성문화를 일구는 만남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보는 성』

장 윤 경(본 상담소 홍보출판부장)

‘성문화 읽기’ 모니터 모임은 각종 정보 매체가 성문화를 왜곡되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낀 몇몇 상담소 식구들이 만든 소모임이다. 이 모임에서는 성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관점 비판, 잘못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되는 관점 제시를 위해 각종 간행물과 대중매체 등을 모니터 할 계획이다.

첫번째 모임에서 모니터 한 것은 상담소에서 처음으로 발간된 책인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보는 성’이다. 선택 이유는 이 책이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보,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을 바로 잡을 목적으로 발간되었기 때문이다.

모니터 방법에 있어서는 상담소에서 나온 책이므로 내부 사람들이 ‘성문화 읽기’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외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더 발전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외부 독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다만 설문은 구성원 임의의 조사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고, 구성원들 주위에서 책을 읽은 독자들을 설문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설문조사에 응한 독자는 모두 18명으로 그 중 여성 16명, 남성 2명으로 남녀 비율이 여성에게 치우친 감이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3명, 30대 6명, 40대 9명으로 연령대도 제한된 편이었고 분포가 고르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외부 독자들의 반응을 수렴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설문대상자 모두 알아야만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한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로는 반수 이상이 성폭력의 실상에 대해 놀라움을 역설했다. “막연히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사례와 통계수치를 접할때는 충격적 이었다.”고 한 49세 남성이 있었다. 그리고 33세 남성의 경우는 성폭력의 현실에 대해 이 시대의 한 남성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했다.

도움을 받은 점에서는 주로 성폭력 현실에 대해 인식하는 단계로 “성폭력이 피해자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임을 깨닫게 되어 기쁘다”는 42세의 전업주부가 있었다.

재미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반수이상이 <임신한 여성의 눈으로 본 사회>로, 35세의 전업주부는 자신도 임신 당시 느꼈으나 억울하게

지나칠 수 밖에 없었던 점들을 똑부러지게 표현해 속이 후련하다고 했다.

보편적으로 ‘어려운 책은 아니었다’는 평가로 많은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성공한 셈이다. 다만 응답자의 대부분이 읽다가 자녀들이 들어오면 숨기게 되고, 선뜻 읽어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조금씩 성에 대해 말하는 분위기로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성에 대한 언급이 부자연스러운 일인것 같다.

거부감을 느낀 부분과 아쉬웠던 점에는 18명 모두 표지와 삽화를 지적했다. “하트 모양 뿐만 아니라 색상 배합도 선정적으로 보인다.”(33세 남성, 책 디자이너) “표지 전체 분위기가 싸구려라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추천해 주거나 선물로 받으면 모를까 일부러 사서 보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42세 여성, 전직 사보편집인) 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앞으로 상담소에서 나왔으면 하는 책으로는 “자녀들을 위한 성교육도서”(38세 전업주부), “개론적인 차원에서는 이 책이 역할을 다한 것 같다. 한 주제를 가지고 조금은 전문적으로 다루어도 괜찮을 듯”(42세 여성, 교사), “피해 극복 수기가 나온다면 많은 피해 여성들이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26세 여성, 사무직) 등으로 이런 의견은 새로운 책을 출판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더 해주고 싶은 말로는 상담소라는 특수한 곳에서 나온 책인 만큼 책 표지에 상담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제언이 있었다.

이상 빈약하지만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보는 성’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이다. 모니터 모임의 첫작업이라서 미진한 점, 빠뜨린 점도 많지만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고 싶다. 이 내용을 발판으로 앞으로 상담소에서 나올 책이나 자료집 등을 기획하는데 더 좋은 의견이 교환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편집자주

나눔터 7호 부터 ‘성문화 읽기’라는 고정란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상담소 소모임으로 꾸려지고 있는 <성문화 읽기> 모니터 모임에서 정리된 성문화 전반에 대한 비평을 실을 예정입니다.

미리 보는 상담소

- 4월 10일 - 사례연구모임(2주년 자료집 workshop)
운영 위원회/사무자원봉사자 정기모임
- 16일 - 한양대 정신의학회 학술대회 참가
(최영애 소장 친족강간 실태 발표)
- 24일 - 성문화 읽기 모니터 모임(상담소)
- 28일 - 나눔터 제 7호 발간 제 2기 교육자료집 발간
- 29일 - 2주년 기념행사(명동 YWCA 1층강당)
상담사례분석 자료집 발간

- 30일 - 국회법사위 주최 성폭력특별법 공청회(국회)
- 5월 1일 - 사례연구모임/운영위원회
- 10일 - 김진관, 김보은사건 공대위 활동 평가 모임
- 17일 - 제3기 상담원교육 시작
- 22일 - 상담원 교육생들을 위한 합숙훈련
- 29일 - 성문화 읽기 모니터 모임
- 6월 5일 - 사례연구모임/운영위원회
- 26일 - 내부 바자회
성문화 읽기 모니터 모임

자원활동의 의미

정리: 조 중 신(본 상담소 상담부장)

본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에 대한 상담, 의료, 법적측면에서의 지원활동,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 및 홍보 출판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인간존엄성의 회복과 자유로운 사회건설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 후원회원들의 재정지원, 의료, 법률, 경찰, 학술연구 부문 자문위원들의 전문기술지원, 상담원, 사무자원봉사자들의 자원활동 등이 뒷받침되고 있다. 앞으로의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자원활동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연구, 조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절실하다. 현재 활동중인 자원활동자와 앞으로 참여할 자원활동자의 동기유발과 의식고양을 위해 간단히 자원활동의 의의와 자원활동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정리해 본다.

〈자원활동의 의의〉

자원활동(Voluntarism)은 자발, 자주, 자유의지를 뜻하는 볼런타스(Voluntas)에서 나온 말로서 "개인자신이 선택한 자원활동기관을 통하여 활동하며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의 자유와 민주적 과정속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며, 공익의 요소를 증진, 촉진시키기 위한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활동과 그 기관이다"고 정의할 수 있다. 자원활동은 봉사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지만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자혜심, 감상주의, 영웅주의가 아니며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타인과 더불어 선행행동을 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실현과 자기성취를 하며, 보다 높은 차원의 공동복지실현에 무보수로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민주복지사회실현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즉 자원(봉사)복지활동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계발, 활용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도록 하며 또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보람있는 삶을 체험하며 한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자원활동의 대상과 기능〉

자원활동의 분야와 종류는 우리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 공동선과 공동복지를 위한 과제로서 각자의 능력과 관심의 정도에 따라 활동방법이 달라진다. "이것은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나 기관과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실천해 나갈 수 있다. 자원활동은 개인적으로 사회참여를 통해 자신의 시간, 기술, 지식, 능력을 가치있고 의미있는 일에 활용할 수 있어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성숙을 가능하게 하며 자신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견문을 넓히고 남을 이해하게 되어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국민 개개인에 내재되어 있는 선의를 표현하여 이웃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복지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해 주어 지역사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방되도록 제도의 개선을 유도해 사회의 비인간적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원활동자(Volunteer)의 역할〉

자원활동자는 개인적으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시설과 관계를 맺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상담, 지도,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편의제공, 사무행정적 업무처리, 섭외홍보활동, 모금활동, 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운영에 참여,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여 기관의 존속과 발전에 기여하는 일을 한다. 이로써 사회복지문제의 발견, 예방, 통제, 치료하는 역할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 집단, 지역사회를 위한 대변자, 협력자로서의 역할, 복지기관과 지역사회가 협조해나가는데 매개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의식과 인간성 회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사명을 행하게 된다.

〈자원활동자의 자세〉

자원활동자는 자신의 능력, 의지, 결단에 대해 숙고한 후 자원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이는 활동장소, 본인의 관심분야, 성격, 정력, 기술, 기능의 소지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자원활동자가 가져야할 자세는

- 자신이 관심있는 일부터, 자기 주위에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
- 가족이나 직장의 이해를 얻는다.
- 겸손한 태도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
- 활동할 업무의 가치를 믿는다.
- 자발적,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한다.
- 물질적 보수를 바라지 않는다.
- 끊임없이 공부하여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
- 자신이 지닌 성격상의 장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 활동하는 기관에 정성과 신의를 다한다.
- 조정관리자 및 기관의 안내와 결정에 따른다.
- 직무안내훈련에 적극 참여한다.
- 활동기관에 관련된 비밀은 보장한다.
-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한다.
- 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 신속하고 확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활동을 점검하고 기록한다.
-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지나친 자만심을 갖지 않는다.
- 자원활동자간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 항상 웃는 얼굴로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고 겸소하고 단정한 복장을 한다.

자원활동은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그 성과가 화려하거나 빛나는 일이 아니므로 남이 알아주길 기대하지 않고 사회에 대해 보답한다는 의식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지녀야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강 기 원(본 상담소 대표이사, 변호사)

본 상담소 초기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상담소와 인연을 맺어 온 강기원 변호사가 1993년 2월 정기총회에서 제 3대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서글서글한 어머니와 여걸의 풍모를 동시에 지닌 신임 이사장은 단국대 교수인 남편 김학준씨와 인구폭발문제를 심각하게 염려하여 슬하에 딸 하나만을 두고 있다고 한다.

강 신임대표이사는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성장관이 3명이나 임명되어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환영하는 바이지만, 몇몇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그 나라 여성의 지위를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여성의 지위라고 강조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문제는 성차별, 여성몰시, 여성 스스로의 자기비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여성차별적 사회에서 우리가 받아온 광범위한 교육 즉 가정교육, 학교교육, 매스컴 등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인간 개개인의 자아존중감이 학교교육에 반영되어야 이 교육을 받은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해 남녀차별적 교육이 아닌 올바른 인간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는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 또한 사회교육에서 페미니즘적 요소가 부족하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전반적인 남녀차별의식의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여성의 지위 개선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 할 일들이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일은 꼭 해야 할 일인 동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상담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직 내부적인 활동이나 운영방식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뜻을 가지고 정열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담소 식구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 공동목표를 위하여 이사과 자문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적극적으로 활동할 뜻을 밝혔다.

강 신임대표이사는 경기여고, 서울법대, 美 예일대학원 등을 거쳐 현재는 청조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리:김 미 숙

나눔터 알림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규 후원회원 〉

김광진, 김승권, 김춘란, 김혜연, 박남순, 박현숙, 서윤희, 오희철, 이종민, 이진성, 조은경, 한신원, 현경순, 현범순, 현상훈

〈 나눔터 신규 회원 〉

고정희, 박윤주, 박정현, 이선형, 이현주, 윤홍근

〈 기부금 내신 분 〉

김송호, 김정삼, 이복자, 전은희

〈 물품 기증해 주신 분 〉

최영애 —카메라, 전자계산기

〈 교육할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분 〉

민웅기(함춘 여성클리닉 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제3기 상담원 교육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후원회원 배가운동에
동참합시다 !!”

함께 일하는 우리 친구들(사무자원봉사자)을 소개합니다.

상담소 한쪽 벽에 걸려 있는 나눔사랑(사무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모음집)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이야기 속 주인공입니다. 저희들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작은 봉사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 ‘능력은 학문에 비례한다(?)’ 열정으로나 실력으로나 우리를 따를 자 그 누구라 ???89대행진: 이윤상, 박현이, 강정심, 이내은, 소현숙, 김명륜
- ☞ 누가 그녀를 변진순이라 불렀던가? 산악모임을 꾸려가는 열성 일꾼: 조유경
- ☞ 우체국에 관한 일이라면 내가 단연 일등!: Stefanie
- ☞ 홍보출판부의 핵심 세력(?): 연민이, 김영아
- ☞ 컴퓨터의 귀재. 일단 한번 맡겨보시라.: 장여경
- ☞ 우리는 명콤비!: 이은경, 안경주
- ☞ 생일날을 기대해 주세요. 사랑이 담백 담긴 카드가 ‘나눔사랑’으로 배달됩니다.: 김선아
- ☞ 성실을 담보로 열심히 일하는 열성과.: 이지현
- ☞ 자원봉사자 소식을 육성으로 듣고 싶을 때, 504-5xx5로 돌려주세요.: 김정희
- ☞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배우려는 노력과: 최혜선
- ☞ “열심히 일할겁니다” 당찬 각오로 시작하는 신진세력들: 이혜미, 조윤희, 정윤자, 송경화, 강해정, 황경선, 최미선, 이용순, 최지영, 김은주, 심희옥, 고경아, 홍영아

만든이: 김영아, 변혜정, 소현숙, 연민이, 이계중, 장윤경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상담전화: 02) 522-1040~2



유한국 성폭력 상담소
(02)522-1040~2
법률·의료·심리상담

강간을 비롯한 성추행, 성착취, 음란전화 등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정신과의사·산부인과 의사·법조인·경찰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전화상담: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 오전 10시~오후 1시

면접상담: 화·목요일

집단상담: 내담자모임이 이루어진 뒤 시작

여러분의 조그마한 정성을 기다립니다

- **상담원**: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여성학·상담교육) 을 마치면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사무봉사**: 상담소 활동에 필요한 여러 활동 (번역, 사무보조, 자료정리 등) 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525-5838)
- **물품기증**: 상담소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사무용품 등)
- **후원회원**: <성폭력 상담소> 의 기본재정은 후원회원으로 충당됩니다. 고통받는 피해여성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마음으로 상담소의 한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후원회원이 되시면 한가족으로서 상담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고, 본 상담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은 돈도 큰 기쁨이 됩니다.

■ 온라인 계좌번호

| | |
|-------------------------|---------|
| 국민은행: 009-01-1176-632 | 성폭력 상담소 |
| 농협: 037-01-194301 | 성폭력 상담소 |
| 조흥은행: 308-01-133092 | 성폭력 상담소 |
| 한일은행: 015-040018-01-001 | 성폭력 상담소 |

소식지 「나눔터」와 함께 하세요!!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1년 구독료 5천원을 위의 온라인 번호로 납입하신후 본 상담소에 주소를 알려 주시면 계간 [나눔터]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